

선(線)을 중심으로 본 엄정순의 작품세계

오진경(이화여자대학교 미술사학 교수)

엄정순은 1988년, 독일 뮌헨 미술대학에서의 수학을 마치고 귀국한 이래, 다섯 차례에 걸친 개인전과 수많은 단체전을 통하여 이미 많은 이들에게 친숙한 이름으로 기억되는 작가이다. 한 사람의 화가로서 그녀가 걸어온 여정이 너무 짧고, 더구나 결코 같은 자리에 머무르지 않으려는 욕구에 의해 매 전시회 때마다 그녀의 작품들에는 새로운 양식적 벽화가 현저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엄정순의 작품세계를 총체적으로 고찰한다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그러나 비록 얼핏 보기에는 공통점이 없는 듯이 보이는 다양한 양식들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작품들에서는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어떤 집요함 같은 것이 느껴진다. 이 글에서는 과연 이 집요함의 요체가 무엇이고 그것은 어디에서 연유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이제까지의 그녀의 작품들을 선(線)이라는 요소를 중심으로 점검해 보고자 하며, 이것은 곧 그녀의 작업이 지니는 의의 및 앞으로의 전망을 가늠해 보는 일이 될 것이다.

엄정순은 자신의 작업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곤충이 더듬이를 통해 대상을 관찰하고 느끼며 이해하듯이, 나의 화면은 대상을 더듬어가는 과정이며, 그 행위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결국 그녀의 작업은 어떤 환경 속에서건, 어떤 대상 앞에서건, 자신만의 고유한 「더듬이」에 의해 자발적으로 그녀를 둘러싼 세계의 모든 대상을 인식하고자 하는 노력이며, 곧 세상 앞에서 생생하게 깨어 있는 자아의 존재를 다시 한 번 확인하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녀의 다양한 양식의 작품들 속에 공통적으로 흐르고 있는 집요함이란 바로 이와 같은 실존적 의지이다. 이러한 의지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삶과 예술행위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고 보는 그녀의 태도에 그 근거를 둔다.

1996년 작, 「불의 선(The fire line)」에서 볼 수 있듯이 그녀는 유화물감 외에도 목탄이나 파스텔과 같은 재료들을 즐겨 사용한다. 그것은 이것들이 손으로 직접 문지르거나 닦아낼 수 있는 물질들이기 때문에 캔버스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둘 수 밖에 없는 붓의 사용보다는 더욱 가깝게 그리고 직접적으로 화면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미술에서처럼 단순히 그림을 그리는 도구로서 사용되는 손이 아니라, 작가의 몸의 일부분인 손 그 자체가 직접 화면 위에서 물질을 느끼고 다루는 주체가 되어 살아 호흡하는 그대로의 자취를 남긴다는 일이 그녀에겐 중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신속한 운필을 통해 운동감이 나타나는 선이나 얼룩들을 화폭에 담아냈던 추상표현주의자들과 비교해 볼 때, 엄정순의 선 작업이 유사한 점을 지니면서도 구별되어질 수 있는 점이 있다면, 그것은 이와 같이 그녀가 보다 주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모든 현상을 인식하는 주체가 되

고자 한다는 사실에 있다. 목탄이나 파스텔처럼 손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료로서 그녀가 자주 이용하는 것에는 물건을 태운 재도 있다. 자신이 사용하던 친근한 사물이나 쓰레기들을 태운 재를 작품 제작에 이용한다는 사실만큼 삶의 경험과 예술을 그대로 결합시키려는 그녀의 의도가 극명하게 보여지는 예도 없을 것이다. 인생의 주체자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남긴 흔적으로 미술작품에 도입함으로써 그녀는 조형작업에서도 인식의 주체로 남길 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자신만의 고유한 더듬이로 세계의 모든 것을 인식하고자 하는 엄정순의 의지는 선이라는 조형요소를 운용해가는 태도에서 보다 잘 나타난다. 그녀에게 있어서 선은 어떤 형상을 그리기 위한 묘사의 수단이 아니다. 선은 일상 생활 속에서 그녀가 보고 느낀 체험이 그녀의 감수성 및 정서와 결합되어 이루어진 것으로서, 한마디로 그녀의 삶과 사고와 감정의 흐름을 그대로 기록한 내용 그 자체인 것이다.

엄정순의 작품에는 초기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늘 선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외형적으로는 끊임없이 변화된 양상으로 나타난다. 1987년의「무제」나 1988년의「무제」와 같은 초기 유화 작품에서는 힘차고 격렬한 붓질부터 나온 불규칙적인 선들을 볼 수 있다. 이 때에는 유화물감이 지닌 물질성이 강하게 느껴지는 두텁게 칠해진 선들과 뿌러지거나 흘러내린 물감에 의해 우연하게 생긴 선들이 서로 얼크러져 추상표현주의적인 화면을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있어 선에 대한 모색은 유화보다 오히려「드로잉」연작에서 더 잘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경쾌하고 자발적인 선들이 모여 다분히 유기적이고 생태학적인 느낌을 주는 형상들을 이루고 있는 이 드로잉들은, 1990년의 개인전에서 그녀가 보여주게 될「노스텔지어」연작이나「공상의 늪을 떠나면서」와 같은 작품들의 경향을 이미 예고하고 있는 듯하다. 1990년의 개인전에서 선보인 대부분의 작품들에서는 선들이 부유하는 듯 한 형상들의 주변을 에워싸거나 그 배경을 또는 내부공간을 채우고 있는데, 화면은 전체적으로 미생물들이 꿈틀거리는 미시적 세계 같기도 하고, 거시적 세계인 우주 공간 같기도 보인다. 이러한 생태학적인 느낌을 주는 형상들과 함께 등장하는 자유로운 자동기술적인 선들을 보면서, 엄정순의 작업을 초현실주의자들의 자동주의적 데생과 비교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의 방법적 태도는 무의식적인 끄적거림에 의해 잠재 의식 속의 리비도적 진실을 드러내려는 초현실주의자들의 경우와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노스텔지어」와 같은 작품에서 무한한 공간감을 느끼게 하는 배경 위에 그어진 평행선들은 무의식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어떤 의도적인 방향성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유동하는 듯한 이 선들은 항상 움직이며 생동하는 작가의 의식의 흐름을 나타내는 것인 동시에 회상과 공상의 세계로의 자유로운 여행을 인도하려는 의식적인 구성에 의한 것들로 보아야 할 것 같다. 한편「무제」나「공상의 늪을 떠나면서」와 같은 작품들에서 형상을 이루는 반복적인 선들 또한 무의식적인 끄적거림이기보다는 자연, 또는 우주를 이루는 본질적인 것에 접근하려는 작가의 끈질긴 욕구를 느끼게 하는 선들로 보인다.

1993년 가진 개인전에서는 형태의 윤곽선을 이루거나 방향성을 보이는 선들이 아니라 굵은 행위 그 자체가 보다 강조된 반복적인 선들로 뒤덮인 화면들이 등장한다. 1992년작, 「무제」에서 처럼 전체적으로 전면 구성을 보이는 가운데 무수히 그어진 선들은 일견 잭슨 폴록의 작품을 연상하게도 한다. 그러나 물감의 흘리기와 뿌리기에 의한 우연성과 행위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폴록의 화면과는 달리 엄정순의 그림들은 선을 그어가는 작가의 의지로 가득 채워져 팽팽히 긴장되어 있다. 묘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유롭고 순수한 운동 그 자체로서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무수히 그려진 선들은, 이 세상의 모든 대상을 파악하고 인식하려는 그녀의 「더듬이」가 수없이 스치고 지나간 흔적들로 보인다. 그러한 끈질긴 노력의 결과 인 듯, 반복적인 선으로 뒤덮인 화면 위에는 「무제」나 「숲이 시작되는」에서와 같이 거대한 꽃이나 나무숲 등의 형상들이 어렵듯이 떠오르기도 한다.

최근 들어 그녀의 작품에 등장하는 선들은 종종 변형된 형태로 나타난다. 예를 들면 1996년에 제작된 「원형의선」이나 「겨울: 침묵의 선」과 같은 작품에서 선은 일종의 길다란 직사각형이나 띠라고 불려야 타당할 것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 이제 선들은 양 옆으로 확장되는 방향성을 보이거나 굵는다는 행위가 강조된 속도감 있는 가느다란 선들이 아니라, 화면 내에서 확고한 위치와 면적을 차지하게 된 형상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또한 작가의 내적 감수성에 조용하는 삶의 파편들처럼 느껴지던 이제까지의 선들과는 달리, 이 새로운 형태의 선들은 보다 사변적이고 철학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그것은 아마도 그녀가 모든 대상을 인식하는 수단으로서 추구해 왔던 선의 활용이 이제 더욱 이론화되고 체계화되었기 때문이다.

흥미롭게도 엄정순의 그림에는 꽃이나 나무와 같은 자연의 소재들은 등장하지만 사람이나 동물 같은 소재는 볼 수가 없는데, 그녀 스스로도 그 점이 항상 의문이라고 말한다. 이 후의 엄정순의 작업이 과연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며, 또한 그녀의 작품세계에서 선이 지니는 의미가 어떤 양상으로 변할지는 알 수 없다. 어쩌면 조용하고 사색적인 태도로 자연 앞에 홀로 서서 대상에 대한 끈질긴 인식을 추구해온 그녀가 앞으로 선(善)과 악(惡)으로 불리우는 온갖 대립적인 가치들과 감정들이 서로 부딪쳐 갈등을 일으키는 공동체적인 인간 사회의 끈끈한 국면들을 「관찰하고 느끼며 이해하려」 할지도 모르겠다. 확실한 것은 자신의 앞에 놓인 모든 것들에 호기심을 지닌 채 그것들을 이해하기 위해 끊임없이 「더듬이」를 움직이고 있는 그녀의 인식의 몸짓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점, 따라서 그녀의 감수성과 투명한 시각으로 일상의 단편들이 지니는 개별적인 특성의 보편성을 지닌 조형적 가치로 승화시킬 줄 아는 작가인 엄정순의 미래에 기대를 걸어본다.